

‘전자카드 도입’ 득보다 실... 불법도박 근절이 우선

▶▶▶ 불법(스포츠)도박 잡아야 나라가 산다!
‘전자카드 도입’은 해법이 아니다!

최근 현역 프로선수를 상대로 하지도 않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전직 프로선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일각에선 한동안 국내 프로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승부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시선은 국내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워낙 크고, 방대하게 퍼져있는 데 기인한다. 스포츠동아는 이에 상·하로 나눠 불법도박의 실상을 짚어보고,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오히려 불법도박을 부추길 수 있는 ‘전자카드제’에 대해 논의해본다. (편집자 주)

“전자카드 쓰느니 불법도박” 일부 반발 속 인권위도 ‘인권침해 소지 있다’ 공식 표명 합법산업 위축...심각한 세수부족 우려도 “규제보다 불법도박 근절 시급” 한 목소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사감위)가 30일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에 대해 재논의한다. 사감위는 2월 23일 ‘스포츠베팅산업 전자카드 시행기본방침 및 2015년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권고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당초 2018년 전면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유보했다. 사감위가 다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자카드제란?

전자카드제는 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은 물론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모든 합법사행산업에 이용할 때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2018년 전자카드제 전면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결정했다. 지난 달 회의에서 2018년 전면 시행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위원장 이하 정부위원·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 사감위 내부적으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정도로 적잖은 문제 요소를 안고 있다.

●합법산업 규제? 불법도박 근절이 먼저!

전자카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주된 논리는 도박중독자의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화에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이용자의 지정맥(손가락 정맥)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전자카드제와 관련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30일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합법사행산업 관련업계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경마·경륜 등은 물론 스포츠토토 등 합법사행산업에 이용할 때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를 사용해야만 한다. 스포츠동아DB

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연쇄 위기에 따른 심각한 세수 부족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동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행산업을 즐기던 사용자들이 카드 발급의 불편함과 발매처리 지연 등이 겹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훨씬 접근이 쉽고 사행성 또한 큰 불법도박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2013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이 전자카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결과, 스포츠토토 이용고객 중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차라리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8.44%에 달했을 정도다.

매출총량 규제와 영업장수 규제 등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불법도박시장 규모(2008년 53조원→2012년 75조원)만 키웠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되면 불법도박 규모가 2012년 기준보다 훨씬 커질 것이란 예측 조사도 있다. 합법사행산업 규모가 줄고 불법도박 규모가 커지면 세수도 줄어 들 수밖에 없다. 당장 스포츠토토에 의존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도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관련 업계에선 정부가 전자카드 도입에 힘을 쓰는 것보다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선 불법도박 근절을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원을 확충하고, 그보다 먼저 현재 해당업무에 종사중인 이들이 ‘한직으로 몰려났다’는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란 얘기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문체부 “올해 400억 스포츠산업펀드 조성...200억원 지원”

200억원은 민간·기관투자자 참여 유도
윤양수과장 “5년내 2000억원 성장 목표”

스포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윤양수 스포츠산업과장이 올해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스포츠산업펀드의 추진 배경과 기본 운영방침을 스포츠산업 현장 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향후 5년간 펀드 규모를 2000억원 이상으로 늘려 스포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재표명했다.

윤 과장은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400억 스포츠펀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88회 스포츠산업포럼에서 ‘스포츠산업 운영계획’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우리나라가 국제대회를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스포츠산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스포츠산업펀드가 스포츠산업을 키우는 촉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400억원 규모의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을 올 주요 정책사업으로 선정해 시행중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모태펀드에 스포츠계정을 신설해 펀드 결성 목표액인 400억원 중 200억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나머지 200억원은 민간·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조달한다. 운용자금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용자’와 달리 스포츠산업펀드는 관련 사업의 창의성과 수익성, 성장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용자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 스포츠산업계 현장에선 크게 반기고 있다.

윤 과장은 “스포츠산업의 다양한 콘텐츠와

수익모델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포츠 및 관련산업을 주 투자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도형 투자조합으로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민간과 기관의 출자를 받아 현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된 모태펀드 1차 정식 출자사업에는 총 4개 조합이 출자를 신청한 상태로, 문체부는 서류검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이달 내로 이 중 2개 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윤 과장은 “중진계정, 영화계정 등에 비하면 아직 스포츠계정의 모태펀드 조성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우선 6월까지 자조합 결성을 완료해 스포츠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포츠산업펀드 규모도 향후 5년간 2000억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 윤양수 스포츠산업과장이 2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88회 스포츠산업포럼에서 스포츠산업펀드 운용 계획을 밝히며 스포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진현 기자 kwangshin@donga.com

훈련으로 기선잡은 후 어린딸 동행 선물...이정철 감독의 ‘데스티니 밀당’

■V리그구단들 ‘외국인선수 모시기’ 백태

‘NH농협 2014~2015 V리그’를 결산하는 챔피언 결정전(남녀 각 5전3승제)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여자부 정규리그 우승팀 도로공사와 플레이오프(PO)를 통과한 2위 IBK기업은행이 먼저 맞붙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국가대표 라이트 공격수 니콜(도로공사)과 데스티니(IBK)의 대결에서 승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자부 정규리그 우승팀 삼성화재와 PO를 거친 2위 OK저축은행은 28일부터 격돌한다.

●좌절과 선택

지난 시즌 2연속 통합우승을 노렸던 IBK는 카리나의 결정력 부족으로 패배를 맛봤다. 챔피언전에서 발휘했던 GS칼텍스 베퍼의 투혼은 마치 1984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때 롯데 최동원을 연상시켰다. 무시무시했다. IBK 이정철 감독이 올 시즌을 앞두고 데스티니 영입을 결정한 이유였다. “시즌 때는 필요 없다. 봄에만 잘해주면 된다”고 했다. 국제배구계에서 유명한 ‘성격과 선수’를 데려오면서 생길 여러 문제도 고려했지만, 우승만 해준다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데스티니가 5년 만에 다시 V리그에 온다고 하자, 많은 이들은 예전의 성격을 기억했다. “엄마가 되고 나서 유순해졌다”는 말도 있었지만,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었다.

●간보기

선수들을 엄하게 잘 다룬다는 이정철 감독은 데스티니를 처음부터 강하게 돌렸다. 푸에르토리코리그에서 발목 부상으로 중도 퇴출된 뒤 한국에 온 데스티니는 정상이 아니었다. 이 감독은 엄청난 훈련으로 몸을 만들게 했다. 그 기간 동안 데스티니가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 이 감독은 공격의 파위를 위해 체중 증량을 요구했다. 무거운 짐으로 정상적 점프를 하기 위해선 강한 하체근육이 필요했다. 그 힘든 시간의 밑고 당기기에서 이 감독이 이겼다.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 이 감독은 결과가 나오자 어느 정도 여유를 줬다. 데스티니는 기뻐했다. “이런 선수는 초강대국 잡지 못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그래야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고 이 감독은 밝혔다.

●부상과 태업, 그리고 면담

데스티니 성격의 가장 큰 문제는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정을 내려놓고도 다음날 갑자기 바뀌버리는 일이 많았다. 통역, 트레이너 등 주변 사람들이 애를 먹었다. 그런 성격 때문에 보모가 2번이나 새 얼굴로 교체됐다. 하필 PO를 앞두고 보모가 없었다. 누군가는 데스티니의 어린 딸을 돌봐줘야 했다. 코칭스태프의 부인이나 프런트 직원, 후보 선수들이 돌아가며 딸을 돌봐줬다. 이정철 감독은

훈련 때 어느 누구도 훈련장에 얼씬하지 못하게 했지만, 데스티니에게는 예외로 해줬다. 그 대신 원칙이 있었다. 경기 전 선수들의 이동버스에서 딸의 동행을 금지시켰다. 쉬어야 하는 다른 선수들에게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내린 결론이었다.

4라운드 부상 이후 데스티니는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2월 8일 흥국생명과의 5라운드 경기 때는 센터로 출전했지만, 기대이하의 실력을 보여줬다. 이 감독은 태업을 했다고 믿었다. 위기의 순간이었다. 참지 못한 이 감독이 직접 나섰다. 2월 17일 현대건설과의 5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호소했다.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통역이나 트레이너를 통하지 말고 직접 내게 얘기하라. 계약대로 하자. 감독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내가 배려해줄 수는 있지만, 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못박았다.

●화합과 당부

그날 이후 데스티니는 달라졌다. 이정철 감독의 강한 의지를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후 데스티니의 플레이는 부상 이전보다 훨씬 좋았다. 이 감독은 체쩍 외에 당근도 줬다. “포스트 시즌부터는 훈련도 원하던 빼주겠다. 그 대신 다른 선수들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책임감을 가져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당근도 있었다. 데스티니에게는 다

음 시즌 터키리그에서 활약하고픈 꿈이 있다. 최근 김사니를 통해 터키리그의 어느 팀에서 관심을 보여왔다. 이 감독도 이 사실을 알았다. “여기서 좋은 평판을 얻으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열었다. 지금 데스티니는 우승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리그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데스티니의 남편이 딸을 돌보기 위해 22일 한국에 왔다. 이 감독은 남편을 따로 만났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다. 데스티니의 성격을 건드리지 말고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라”고 신신당부했다.

●외국인선수와 사리, 그리고 노벨평화상

팀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선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감독이나 프런트 모두에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데스티니만 예외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다. 어느 팀 사무국장은 외국인선수와 겪은 한 시즌을 돌이켜보며 “내 몸에 사리가 쌓일 지경”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만큼 많이 참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선수를 V리그 특유의 조직문화와 훈련방식에 적응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서로의 오해가 쌓이면 황당무계한 사고도 생긴다. 몇 년 전 어느 팀 여자 외국인선수는 동료들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다. 숙소에서 방문을 단아두고 혼자 하는 일이라



IBK기업은행 데스티니는 남편과 떨어져 출로 딸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해왔다. 미국인 보모가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코칭스태프의 부인, 프런트 직원, 동료선수들이 함께 데스티니의 육아를 도와야 했다. 스포츠동아DB

고는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일뿐이었다. 옆방의 어느 선수는 그 방에서 연기가 나자 불이 난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있는 선수를 보고 더 기겁했다.

어느 외국인선수는 TV에 나오는 멋진 옷을 보자마자 통역에게 사요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그 선수의 체격이 컸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옷을 사서 그 선수의 사이즈에 맞게 고치는 작업을 해서 즉시 내놓지 않으면 난리가 났다. 그래서 ‘통역 3년이면 노벨평화상 후보가 된다’는 농담도 있다.

김종현 전문기자 marco@donga.com